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혜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독립적-상호의존적 문화성향에 따른

거절 반응 예측의 차이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임소은

독립적-상호의존적 문화성향에 따른
거절 반응 예측의 차이

박혜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임소은

인 준 서

임소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이, 거절 당한 상대방의 반응을 실제와 부합되게 예측하지 못할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더 나아가 거절하는 사람의 독립적, 혹은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에 따라 거절 당한 사람의 반응에 대한 예측이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연구 1). 또한 이러한 예측에서의 차이가 상대방의 관점을 충분히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연구 2). 연구 1의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부탁을 거절한 사람은 부탁을 거절 당한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 거절에 대하여 더욱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절하는 사람의 독립적 문화성향의 수준이 낮을수록 부탁을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을 실제와 가깝게 예측함을 관찰하였다. 연구 2에서는 타인의 관점을 취하도록 하였을 때 거절하는 사람의 독립적 문화성향의 수준이 낮을수록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을 실제와 보다 가깝게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타인의 관점을 취하도록 하지 않았던 통제 조건에서는 거절하는 사람의 독립적 문화성향의 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상대방의 반응을 실제와 가깝게 예측하지 못함을 관찰하였다.

종합하건대, 이러한 연구 결과는 거절하는 사람이, 거절 당하는 사람의 반응을 더욱 부정적으로 예측하며, 거절하는 사람의 문화성향에 따라 이러한 예측의 부합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문화성향과 함께 관점 취하기가 이러한 예측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문화성향이 거절에 대한 부정적 반응 예측에 미치는 영향, 관점취하기의 영향과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독립적-상호의존적 문화성향, 부탁의 거절, 대인지각, 관점 취하기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성향과 부탁의 거절.....	7
2. 대인지각과 관점 취하기.....	11

III. 연구 문제 및 가설

1. 연구 문제.....	16
2. 연구 가설	17

IV. 연구 방법

1. 예비 연구.....	18
1) 연구 참가자.....	19
2) 연구 절차 및 결과.....	19
2. 연구1	21
2.1 연구방법	22
1) 연구 참가자	22
2) 측정 도구	22
3) 연구 설계 및 절차.....	24
2.2. 결 과	26
2.3. 논 의	30

3. 연구 2	32
3.1. 연구방법	33
1) 연구 참가자	33
2) 측정 도구	33
3) 연구 설계 및 절차	34
3.2. 결 과	37
3.3. 논 의	41
V. 종합 논의.....	44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표목차

표1. 예비연구에서 선택된 부탁 상황들	21
표2. 연구 1과 2에서 사용된 거절에 대한 반응 문항	23
표 3. 부탁의 난이도에 따른 거절에 대한 반응과 예측	28
표 4. 문화성향 척도	55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1에서 관찰된 문화성향에 따른 거절 반응 예측의 차이.....	30
<그림 2> 연구 2에서 관찰된 관점 취하기와 문화성향에 따른 반응 예측의 차이	4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67.3%가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상황에서도 자기 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착한 직장인 콤플렉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착한 직장인 콤플렉스’를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 77.0%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심지어 업무에까지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뉴스 Win, 2011. 6. 20. 보도). 이처럼 자신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일은 비단 직장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타인의 일을 대신 해주는 것부터 빚보증을 서는 것까지 다양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사례들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흔히 대인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거절을 어렵게 느낀다. 대개 부탁과 거절은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부탁을 거절할 때에는 거절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과 거절이 앞으로 상대방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게 된다. 만약 부탁을 거절당한 사람이 크게 서운함을 느끼거나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이 거절당한 상대방이 크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부탁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거절을 당해도 상대방이 크게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부탁을 수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요컨대, 대인관계를 순조롭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부탁을 거절 당하였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적절하게 예측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부탁을 거절하였을 때 상대방이 보일 반응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예측하는가? 현재까지 이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대인지각, 즉, 상대방이 경험하는 것에 대한 지각에 기초한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의 반응을 항상 실제와 부합되게 예측하지는 못한다고 한다(Cooper, 2005; Laing, 1969; Wellman & Lagattuta, 2000). 이로 미루어, 부탁을 거절하는 상황에서도 거절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거절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할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잘못 예측한다면, 부탁을 거절하는 일이 더욱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즉, 거절 당했을 때 상대방이 보일 반응을 실제와 어느 정도 부합되게 예측하는지에 따라 거절 용이성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에서는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예측은 다루어지지 않았고, 주로 거절 행동이 달라지게 하는 변인들을 보고하였다(신승호, 2002; Cheng & Chun, 2008; Shen, Wan & Wyer, 2011). 연구 결과들은 문화성향과 인지적 정당화가 거절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신승호, 2000), 상호성의 규범이 문화에 따라 거절 행동에 다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였다(Shen et al., 2011). 또한 부탁의 정당성과 관계의 친밀성이 문화에 따른 거절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Cheng & Chun, 2008).

위의 연구들은 문화성향에 따라 거절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신승호, 2002; Cheng & Chun, 2008; Shen et al., 2011).

Markus 와 Kitayama(1991)에 따르면, 문화성향은 크게 상호의존적 문화성향과 독립적 문화성향으로 구분된다.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며 '자기(self)'를 정의함에 있어서도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반면에 독립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보다 자기 개념이 '자기'를 정의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일례로, 한국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성향과 거절 행동의 연관성, 관계의 친밀도가 거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에서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상호의존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알고 지낸 지 한달 된 친구와 낯선 사람의 부탁을 더 많이 거절할 것이라 응답하였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문화성향에 따른 거절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신승호, 2002). 중국인들과 미국인들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중국인들에 비하여 미국인들이 정당성(legitimacy)의 수준이 중간일 때, 즉 부탁이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중간 정도일 때, 부탁을 더욱 많이 거절함이 관찰되었다(Chen & Cheng, 2008). 부탁의 정당성의 수준이 중간일 때, 중국인들은 관계의 친밀성을 근거로 거절여부를 결정하였지만 미국인들은 자신의 욕구과 권리의 침해 여부를 근거로 거절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탁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중국인들은 부탁을 한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반면, 미국인들은 자신의 권리와 욕구(needs)를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성향에 따라 부탁을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을 실제 반응과 부합되게 추론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는 직접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나, 문화성향과 대인 지각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문화성향에 따라 대인 지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Holyoak & Gordon, 1983). 구체적으로,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자신을 정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관한 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타인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들인다. 반면, 독립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자기 개념(self-concept)에 근거하여 자신을 정의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닌 고유한 특성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관련된 정보에 비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다면, 노력을 들이지 않았을 때 보다 정교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즉, 독립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처리할 것이며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정보를 정교하게 처리할 것이다. 이처럼 문화성향에 따라 자신과 타인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과 타인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들이는 노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지각이 실제와 부합 하는 정도 역시 문화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타인에 대한 정교한 정보 처리는 타인의 생각과 상황에 대하여 실제와 가깝게 예측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Markus & Kitayama, 1991).

그렇다면 거절하는 사람과 거절 당하는 사람에 대한 지각도 문화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까?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과 관련된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두므로, 거절 당하는 상대방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보다 정교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반면, 독립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보다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두므로, 거절 당하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 처리가 상대적으로 덜 정교할 것이다(Greenwald & Pratkanis, 1984). 그렇다면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독립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여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을 실제 그 사람의 반응과 부합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1에서는

상호의존적인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독립적인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여 거절 상황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실제와 가깝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독립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 보다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을 실제와 부합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를 탐색하고자 연구 2를 수행하였다.

만약 자기 관련 정보와 타인 관련 정보 가운데 어느 쪽에 상대적으로 더 관심을 두며, 어느 정보를 더욱 정교하게 처리하는가로 인하여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독립적인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거절 상황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실제와 부합되게 예측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도록 실험적으로 유도하였을 때 문화성향에 따른 예측의 차이가 감소하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2에서는 관점취하기(perspective-taking) 조변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다루었다.

관점취하기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독립적인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여 일상적으로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빈도가 높다(Takaku, S., Weiner, B., & Ohbuchi, K. I, 2001; Wu & Keysar, 2007). 그러나 독립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정보보다 자신에 대한 정보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일차적으로 자기중심적 관점을 취한다(Epley, Keysar, Boven, & Gilovich, 2004). 타인의 관점을 취한다면 자신의 관점에 기반하여 생각하는 것 보다 그 타인의 입장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독립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여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을 실제와 유사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독립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부탁을 거절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입장을 기준으로 생각함으로써 상대방의 반응을 실제와 가깝게 예측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요컨대, 연구 2에서는 문화성향에 따라 거절 당하는 사람의 반응에 대한 예측이 달라지는 기제를 검증하고자 관점취하기 조변(manipulation)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2에서는 독립적인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관점을 취하도록 유도되지 않는 통제조건에 비하여 관점을 취하도록 유도되는 실험조건에서 거절 당한 상대방이 보일 부정적인 반응을 실제와 보다 가깝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반면, 상호의존적인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타인의 관점을 빈번하게 취하므로, 관점취하기 조변의 효과가 독립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만큼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즉,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관점취하기 조건에 관계 없이 거절 당한 상대방의 반응과 부합하는 예측을 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러나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통제조건에 비하여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게 한 조건에서 거절 당한 상대방의 반응을 실제와 보다 부합되게 예측을 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성향과 부탁의 거절

부탁의 거절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이 지닌 문화성향에 따라, 즉 독립적 문화성향 (independent cultural orientations), 혹은 상호의존적 문화성향 (interdependent cultural orientations)에 따라 거절 행동은 달라진다(신승호, 2002; Cheng & Chun, 2008; Shen et al., 2011). 독립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독립적이며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로 지각하고, 타인보다는 자신의 내적인 생각, 감정에 기반하여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와는 반대로,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 기초하여 자신을 정의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행동을 달리 한다. 그러므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문화성향에 따라 타인과 자신을 구분되게 보는 정도 및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보통 서구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서는 독립적 문화성향을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는 반면, 동양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서는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

그렇다면 문화성향에 따라 부탁의 수용과 거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아마에(amae)에 관한 연구들은 문화성향에 따라 부탁에 대한 지각과 부탁에 대한 태도가 달라짐을 시사하였다(Kitayama, Markus, & Kurokawa, 2000; Mizuta, Zahn-Waxler, Cole, & Hiruma, 1996). 아마에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요청에 대한 수용이 기대되는 상태로서, 주로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난다(Yamaguchi, 1999).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업이 있어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룸메이트가 컴퓨터가 고장나서 고쳐달라는 요청을 한다면, 이는 가까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적절하지 않은 부탁이므로 아마에의 예가 될 수 있다(Niiya, Ellsworth, & Yamaguchi, 2006). 부탁에 대한 지각과 태도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부탁의 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상대방의 부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부탁을 수용할 가능성은 증가될 것이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부탁의 수용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Mizuta와 동료들(1996)은 아마에가 미국인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일본인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짐을 관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인들에게 아마에는 내재화된 증상(internalizing symptom)과 관련이 되었으나, 일본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일본인들에게 아마에는 친밀함에 대한 소망을 포함하고 있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며,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 비하여 더욱 많은 아마에 행동을 보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아마에 관련 정서들(의지하는, 기대는 등)이 미국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나, 일본에서는 긍정적인 정서로 받아들여짐을 관찰하였다(Kitayama et al., 2000). 문화에 따라 부탁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며, 이는 부탁의 수용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일 것이다.

부탁의 수용에 대한 연구들은 문화성향에 따라 부탁을 거절할 때의 기준이 다르며, 이로 인하여 거절 행동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신승호, 2002; Cheng & Chun, 2008; Shen et al., 2011). 거절 행동의 문화차에 관한 Shen 등의 연구(2011)는 상호의존적 문화를 가진 홍콩계 중국인들이 독립적 문화를 가진 북미인들에 비하여 지인의 작은 호의와 선물을 많이 거절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국인들은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상호성의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심리적 부채감(indebtedness)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즉, 문화에 따라, 문화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화성향에 따라 거절에 대한 규범이 다르고 이것이 거절 행동에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인과 미국인을 비교한 Cheng과 Chun (2008)도 문화성향에 따라 부탁 수용 여부가 다르며, 부탁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부탁의 정당성이 중간 수준일 때 미국인들은 더욱 많이 거절함을 보여주었다. 부탁의 정당성은 부탁이 정당하다고 느끼는 수준을 의미하며 그 수준이 높거나 낮을 때는 문화성향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기부하기를 요청 받는 등 부탁의 정당성이 중간 정도 일 때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거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문화성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가진, 중국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관계의 친밀성에 기초하여 거절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독립적 문화성향을 가진, 미국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와 욕구에 위배가 되는지를 근거로 거절을 결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부탁의 정당성이 중간 정도일 때 중국인은 관계의 친밀성에 따라 거절을 결정하였고, 미국인은 자신의 권리와 욕구에 위배가 가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미국인은 자신의 권리와 욕구에 근거하여 부탁의 거절을 결정하였기에 관계를 중요시하는 중국인에 비해 더욱 높은 거절 의사를 보였다. 요컨대, 문화성향에 따라 부탁을 거절할 때 판단의 기준이 달랐으며, 이로 인하여 거절 행동에서 문화차가 발생하였다.

문화성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 국가 간 비교에 초점을 맞췄지만, 동일한 문화 내에서도 문화적 성향에는 개인간 변산이 존재할 수 있음(Triandis, 1998; 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 Triandis & Gelfand, 1998)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즉, 서구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독립적 문화성향을 가지며, 동양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가지지는 않음을 고려하여, 한 문화 내에서 다른

문화성향을 지닌 사람들 사이의 행동 차이를 예측하거나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다.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탁의 수용을 연구한 바(신승호, 2002)에 따르면, 문화성향에 따라 부탁을 거절하는 빈도와 거절을 정당하게 여기는 정도가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한 달 가량 알고 지낸 지인이나 낯선 사람의 부탁일 경우 독립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빈도의 거절 의사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친한 친구에게서 받은 부탁일 경우 문화성향에 관계없이 거절 빈도가 낮았다. 또한 독립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여 자신이 거절할 때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할 때에도, 그 거절이 더욱 정당하다고 평가하고 거절이 정당한 이유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거절에 대한 연구들은 부탁의 수용이나 거절을 결정할 때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거절은 두 사람 간에 일어나는 일이며, 대부분 거절 당한 상대방과의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거절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거절 당한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예측이 이후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거절을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을 아는 것, 거절하는 사람의 예측이 거절 당하는 사람의 반응과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얼마나 거절을 쉽게 할 것인지, 거절하는 사람이 거절을 할 때 무엇으로 근거를 무엇으로 삼는지 등을 검증했으나 거절하는 사람의 입장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탁 상황에서 거절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반응을 얼마나 실제와 가깝게 예측하는지, 그리고 문화성향에 따라 예측과 실제 반응이 부합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여

상호의존적인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거절 당한 상대방의 반응을 실제와 보다 가깝게 예측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2. 대인간 지각과 관점취하기

두 사람 간에 일어나는 부탁과 거절 행위는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많은 경우 부탁과 거절은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만을 고려하기보다 거절이 상대방과의 관계 지속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거절을 당한 상대방이 크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거절이 어려울 것이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거절은 쉬울 것이다. 요컨대, 대인관계를 순조롭게 이끌어어나가기 위해서는, 부탁을 거절 당하였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적절하게 예측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를 지각하는 것이 늘 실제와 일치하지는 않는다(Cooper, 2005; Laing, 1969; Wellman & Lagattuta, 2000). 달리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인상, 혹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를 실제 반응과 동일하게 예측하지 못한다(Batson, Early, & Salvarani, 1997; Depaulo, Kenny, Hoover, Webb, & Oliver, 1986; Ruby & Decety, 2004).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대인지각에서의 불합치성이 여러 조건에 따라 더욱 증가됨을 시사하였다(Anderson & Keltner, 2002; Stinson & Ickes, 1992; Soto & Levenson, 2009). 일례로, 대인 지각에서 판단의 대상이 다른 문화 사람, 외집단원일 때 동일한 문화, 내집단원을 대상으로 하는 추론보다 실제 그 대상의 생각과 정서에 대한 추론은 합치하는 정도가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다(Anderson & Keltner, 2002; Soto & Levenson, 2009). 또한 Stinson 등(1992)의 연구는 관계의 친밀성도 대인간 예측의 부합성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낯선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예측은 친구에 대해 예측보다 정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봤을 때, 타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대인간 예측은 실제 대상이 느끼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대인간 예측이 필요한 거절 상황에서도 거절 당하는 사람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예측은 실제 거절 당하는 사람의 반응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는 대인 지각이 문화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Markus & Kitayama, 1991). 서구 문화권 사람들의 경우 자기표상(self-representation)이 우세하지만, 동아시아 사람들의 경우 타인표상(other-representation)이 자기표상보다 우세하다. Holyoak과 Gordon(1983)도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 미국인들은 타인이 자신에 대하여 유사한 정도(타인-자기 유사성)를 자신이 타인과 유사한 정도(자기-타인 유사성)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미국인들은 자기를 참조점(reference point)으로 삼기 때문에 자신을 중심으로, 즉 타인을 자신에 비추어 비교할 때 더욱 유사성을 높게 지각하며, 타인을 중심으로 자신을 비교할 때는 차이점을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달리 말하면 미국인들에게는 타인표상보다 자기표상이 더욱 우세하며 그들에게는 자기지식(self-knowledge)이 타인에 대한 지식보다 구별되고 더욱 정교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타인과 자신의 지각에서 지식의 양과 지식의 정교화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난다(Greenwald & Pratkanis, 1984). 그러나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이 우세한 인도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서는 자기 지식이 타인에 대한 지식보다 정교한, 비대칭적인 반응이 나타나 않았으며,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반대의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즉, 인도 사람들의 경우 자기-타인

유사성(자기가 타인과 유사한 정도)이 타인-자기(타인이 자신과 유사한 정도) 유사성보다 높았다(Kitayama, Markus, Tummala, Kurokawa, & Kato, 1990, Markus & Kitayama, 1991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이 우세한 문화권(이하 상호의존적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타인이나 자신과 관계되는 타인의 정보에 인지적 노력을 많이 들이며 주의를 기울인다는 주장을 지지한다(Markus & Kitayama, 1991).

문화성향과 대인지각에 대한 연구들은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예측 역시 문화성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Greenwald & Pratkanis, 1984; Holyoak & Gordon, 1983; Markus & Kitayama, 1991). 문화에 따라 타인에 대한 표상은 다르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정보 처리에 들이는 노력이 다르므로 대인지각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호의존적인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정보 처리에 인지적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만큼 거절 당하는 사람의 반응에 대한 정보 처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반면에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정보에 비하여 자기 자신에 관련된 정보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보다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에 적은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정보에 주의를 많이 기울일수록 보다 정교한 정보 처리가 가능해지고, 그러므로 거절 당하는 사람의 반응에 대한 예측이 실제 반응과 부합할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관점취하기에 대한 연구들도 문화에 따라 대인간 지각에서 자기와 타인의 표상이 달라지고 정보처리에 들이는 노력이 다르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관점취하기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 서보는 것으로서, 문화성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상호의존적 문화성향, 혹은 독립적 문화성향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다름이 관찰되었다(Epley et al., 2004; Galinsky, Magee, Inesi, & Gruenfeld, 2006). 자신의 관점을 취하는

것은 신속하고, 준비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인도 세상을 해석할 때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관점을 취한다(Krueger, 1998). 자신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자동적인 과정이므로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일은 반복적인 연습을 필요로 한다. 동아시아와 같은 상호의존적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미국과 같은 독립적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 비하여 자신의 관점이 아닌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것에 많은 가치를 두며(Cohen & Gunz, 2002; Wu & Keysar, 2007), 독립적 문화에 비하여 타인의 관점을 취하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한다(Epley, et al., 2004; Galinsky et al., 2006). 상호의존적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타인 관련 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타인 관련 정보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므로 독립적 문화의 사람들에 비하여 자신보다 타인의 관점을 더욱 빈번히, 쉽게 취한다.

상호의존적인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정보에 많은 관심을 들이고 정보 처리에 많은 노력을 들이므로 거절 상황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할 때도 독립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타인의 관점을 적절하게 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에 서서 그 사람의 정서와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타인의 관점을 적절하게 취했다면 그들의 응답은 거절 당하는 조건의 사람들의 응답과 유사할 것이다. 반면에 독립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타인의 관점을 취하려는 노력을 덜 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응답은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여 다소 자기 중심적일 것이며 거절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탁 상황에서 거절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반응을 어느 정도 실제 반응에 가깝게 예측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문화성향에 따라 예측과 실제 반응이 부합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더 나아가

문화성향에 따라 거절 당한 사람의 반응에 관한 예측이 실제와 부합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러한 차이가 관점 취하기 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다시 말해, 관점을 취하도록 유도하면, 일상적으로 타인의 관점을 덜 취하는 독립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상대방의 반응을 보다 실제와 가깝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지 검증하였다. 즉, 독립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타인의 관점을 취하게 하는 조건에서는 타인의 관점을 취하도록 유도되지 않는 통제 조건에 비하여 거절 당하는 사람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예측이 실제와 보다 가까워지는지를 검증하였다.

Ⅲ.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연구 문제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목표들이 있었다. 첫 번째로, 거절 당하는 사람의 부정적인 반응이 거절하는 사람의 예측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거절한 사람이 거절 당한 상대방의 반응을 실제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예측할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참가자들을 거절한 사람 조건(즉, 연구 참가자들이 부탁을 거절하는 입장에서 서는 조건)과 거절 당한 사람 조건(즉, 연구 참가자들이 부탁을 거절 당하는 입장에서 서는 조건)에 무선할당 하였다. 거절한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은 자신에게 부탁을 거절 당한 사람이 보일 부정적인 반응을 예측하여 응답하였다. 반대로, 거절 당한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은 자신이 거절 당했을 때 보일 부정적인 반응에 관하여 응답하였다. 이 두 조건에서의 응답을 비교함으로써, 거절하는 입장에서 예측한 상대방의 반응이 실제로 거절 당하는 입장에서 보이는 반응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문화성향에 따라 거절 당한 사람이 보일 반응에 대한 예측이 실제 거절 당한 사람의 반응과 부합하는 정도가 다를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즉, 거절 당한 사람의 반응에 대한 거절한 사람의 예측이 문화성향에 따라 달라지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관점을 수용하는 관점취하기를 하는 것이 거절 당한 상대방의 반응과 부합하는 예측을 하게 만드는지의 여부와 문화성향에 따라 이러한 패턴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가설

1. 거절 당하는 사람의 부정적인 반응은 거절하는 사람의 예측과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즉, 부탁을 거절 당하는 사람이 보이는 부정적 반응에 비하여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이 예측한 거절 당하는 사람의 반응이 더 부정적일 것이다.

2.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예측과 실제 반응이 부합하는 정도가 낮아질 것이다.

3. 문화성향에 따라 관점 조변의 효과가 다를 것이다. 즉,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통제조건에 비하여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도록 한 조건에서 거절 당한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다 실제에 가깝게 예측할 것이다.

IV. 연구 방법

1. 예비 연구: 거절 상황 구성

이 예비연구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부탁과 거절의 내용을 탐색하고, 연구 1과 2에서 사용할 다양한 난이도의 부탁 상황들 즉, 상대적으로 수용하기 쉬운 부탁이 이루어지는 상황부터 수용하기 어려운 부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탁의 정당성이 높거나 낮을 때에 비하여 중간 정도일 때 문화성향에 따른 거절 빈도의 차이가 커졌다(Cheng & Chun, 2008). 연구 결과는 부탁의 정당성 수준이 문화성향과 상호작용하여 거절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부탁이 정당하다고 느낄 수록 부탁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부탁이 정당하지 않을 수록 수용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부탁의 정당성에 따라 부탁의 수용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는 부탁의 정당성이 부탁 수용의 난이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탁의 난이도에 따라 부탁의 수용여부가 달라진다면, 거절 행동을 연구함에 있어 부탁의 난이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예비 연구는 다양한 난이도의 부탁 상황들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예비연구는 부탁의 난이도에 따라 거절 반응에 대한 예측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난이도에 따른 부탁 상황을 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 예비연구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단계에서는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부탁의 거절 상황들을 수집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집된 여러 거절 상황들의 난이도, 즉 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부탁이 얼마나 수용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평정을 얻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연구 1과 2에서 사용될, 난이도 상, 중, 하의 부탁 상황들을 선정하였다.

1) 연구 참가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19명의 학생들(남 9명, 여 10명)이 첫 번째 예비연구, 즉 부탁을 거절했거나 거절 당하였던 상황에 관하여 기술하는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 범위는 만 19세에서 26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23.58세였다($SD = 1.64$). 두 번째 예비연구인 거절 상황들의 난이도 평정에는 서울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 36명이 학점 이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참여하였다. 이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 범위는 만 20 세에서 25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21.97세였다($SD = 1.61$).

2) 연구 절차 및 결과

첫 번째 예비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였던 부탁 상황들에 관하여 기술하도록 하였다. 먼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지만 거절하였던 상황과 부탁을 했지만 거절 당했던 상황을 각각 3가지씩 떠올리도록 하였다. 그 후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부탁했고 부탁을 받았는지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과제를 위한 지시문은 다음과 같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이들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자신의 부탁을 누군가에게 거절 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지금부터 잠시 동안 귀하께서 최근에 경험하셨던 거절 상황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언제 어떻게 받았었는지, 혹은 누구의 어떤 부탁을, 언제 어떻게 거절했는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질문지를 통하여 수집된 97개의 상황들 중 두 번 이상 언급된 상황을 골라내었다. 이와 같이 선택된 상황들 중 대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을 제외한 20개의 거절 상황들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 예비연구에서는 첫 번째 예비연구에서 수집되었던 20가지 거절 상황들과 선행연구(신승호, 2002)에서 사용되었던 거절 상황들 가운데 일부를 포함한 총 60가지의 거절 상황들에 대하여 난이도 평정이 이루어졌다. 즉, 연구 참가자들로 하여금 각 상황에 제시된 바와 같은 부탁을 실제로 자신이 받을 경우 수용할 가능성을 0%에서 100% 사이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평정치가 낮을수록 주어진 부탁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임을, 즉 부탁의 난이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신승호, 2002)의 기준을 참조하여, 부탁의 수용 가능성 평정치 평균이 각각 20%, 50%, 그리고 80%인 상황들(즉, 부탁의 난이도 상, 중, 하의 상황들) 가운데 두 가지씩을 선택하여 연구 1과 2에서 사용하였다(표 1).

표1. 예비연구에서 선택된 부탁 상황들

난이도	부탁 내용
상	이번 방학에 유럽여행을 같이 가시겠습니까?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대신 사다 주시겠습니까?
중	함께 공모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지도 교수님과 면담 가능한 시간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하	커피 마시러 같이 가겠습니까? 학생증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당신의 학생증으로 책 좀 빌려 주시겠습니까?

2. 연구 1

연구 1에서는 거절하는 사람이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을 어느 정도 실제와 부합되게 예측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 당하는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할 것보다 부탁을 거절 당한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예비연구에서 선정된 일련의 거절 상황들을 연구 참가자들에게 제시하고, 조건에 따라 각각 주어진 상황에서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평정하거나(거절 당하는 조건) 자신이 주어진 상황에서 거절을 하였다고 할 때 거절을 당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거절하는 조건). 그러나 연구 1의 목적에 비추어 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성향에 따라 거절 당한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예측이 실제로 거절 당한 사람의 반응과 부합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연구 참가자들의 문화성향을 측정하고, 이 문화성향에 따라 예측이 실제 반응과 부합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2.1. 연구 방법

1) 연구 참가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여자 대학생 54명이 학점 이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구 1에 참가하였다. 이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 범위는 만 18 세에서 29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19.37세였다($SD = 1.62$).

2) 측정 도구

거절 상황 질문지

사전 연구를 통하여 생성된 6가지의 거절 상황을 사용하여 난이도 상2, 중2, 하2 상황으로 측정하였다. 9문항(이해하는 정도, 불쾌감, 거절자가 싫음, 자책, 서운함, 민망함, 피거절자가 싫음, 이기적, 서먹함)을 통하여 거절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0: 전혀 그렇지 않다, 9: 매우 그렇다). 1번 역 채점 문항을 제외하고는 점수가 높을수록 거절 상황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2).

표 2. 연구 1과 2에서 사용된 거절에 대한 부정적 반응 문항

구분	문항
1	나는 그 친구를 이해할 것이다 (역채점)
2	나는 거절을 당해서 불쾌할 것이다
3	나는 거절 당해서 그 친구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4	나는 거절 당한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자책할 것이다
5	나는 거절 당했다는 것에 서운함을 느낄 것이다
6	나는 거절 당했다는 것에 민망함을 느낄 것이다
7	나는 친구가 거절한 이유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8	나는 그 친구를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9	나는 그 친구를 서먹하게 느낄 것이다

친밀한 정도는 거절에 영향을 미친다(신승호, 2002).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은 친한 친구일 때는 문화성향에 관계 없이 높고, 낯선 사람과 알게 된지 30일 된 친구에서는 문화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알게 된지 30일 된 친구’로 거절 대상과의 친밀한 정도를 통제하였다. 부탁의 난이도(상, 중, 하)에 따라 거절 당하는 사람이 보일 부정적 반응과 거절하는 사람이 예측한 거절 당하는 사람의 부정적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문화성향 척도

문화성향은 Singelis의 수정된 문화성향 척도 20문항을 사용하였다(표 3). 5점 척도로 연구 참가자들의 문화성향을 측정하였다(1: 나를 나타내는데 전혀 적절하지 않다, 5: 나를 나타내는데 매우 적절하다). 각각 10문항으로 독립적 문화성향과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측정하며 순서효과를 고려하여 상쇄평형화를 하였다. 그러나 예비분석에서 순서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이후 분석에는 순서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독립적 문화성향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6이었고,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내적합치도는 .67 이었다.

3) 연구 설계 및 절차

매 실험 회기는 다섯 명에서 아홉 명의 실험 참가자들로 이루어진 소집단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이 실험실에 도착 했을 때 연구와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익명성이 보장됨을 알려주었다. 이후 연구 참가자들은 두 실험조건(거절함 vs. 거절 당함) 중 한 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질문지에는 거절함과 거절 당함의 두 조건과 문화성향이 포함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에게 제시한 거절함 조건의 지시문은 아래와 같았다.

한 달 정도 알고 지낸 친구가 귀하께 “지도 교수님과 면담 가능한 시간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귀하께서 그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아래

문항들에 기술된 생각이나 느낌이 얼마나 강하게 들 것 같습니까? 아래의 척도에서 해당되는 숫자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연구 참가자들에게 제시한 거절 당함 조건의 지시문은 아래와 같았다.

귀하께서 한달 정도 알고 지낸 친구에게 “지도 교수님과 면담 가능한 시간을 확인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그 친구가 귀하의 부탁을 거절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아래 문항들에 기술된 생각이나 느낌이 얼마나 강하게 들 것 같습니까? 아래의 척도에서 해당되는 숫자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이후 연구 참가자들은 문화성향 질문지를 작성하고 연령과 전공을 포함한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연구 종료 후 연구에 대한 의문이 있는지 묻고,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2 결 과

문화성향 척도에 응답하지 않은 한 사람은 문화성향을 포함한 분석에는 제외되었다. 문화성향의 순서효과, 즉 독립적 문화성향과 상호의존적 문화성향 중 무엇을 먼저 평정하였는가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1) 문화성향에 따른 거절 반응 예측의 차이

본 분석에 앞서, 거절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문항들 간 내적합치도를 계산하였다. 각 상황에서 제시된 첫 번째 문항에 대한 응답은 역채점(reverse scoring)을 한 후 내적합치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부탁의 난이도가 상, 중 및 하인 상황들에서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각각 .91, .92 및 .92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 1에서는 먼저, 거절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 거절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느낄 것이라고 예측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 1의 목적을 위하여 보다 중요하게는, 문화성향에 따라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예측이 실제와 부합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정적 반응 점수들에 대해 2(거절조건: 거절함vs. 거절 당함) X 3(부탁의 난이도: 상vs. 중 vs. 하) X 연속변수(독립적 문화성향) X 연속변수(상호의존적 문화성향) mixed ANOVA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참가자들의 상호의존적 문화성향 점수는 거절 당함 조건($M = 3.70$, $SD = .54$)과 거절함 조건($M = 3.88$, $SD = .39$) 간에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t(52) = -1.33$, $n.s.$ 또한 독립적 문화성향 점수 역시 거절 당함 조건($M = 3.36$, $SD = .60$)과 거절함 조건($M = 3.21$, $SD = .61$)에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t(52) = .88$, $n.s.$ 요컨대, 두 거절 조건의 참가자들이 문화성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 결과 독립적 문화성향에 한하여 거절조건과 독립적 문화성향의 상호작용, 난이도와 거절조건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독립적 문화성향에 근거하여 결과를 기술하였다.

가설1과 일관되게 부락을 거절하는 사람은($M = 3.33$, $SD = .92$) 거절 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M = 2.67$, $SD = 1.02$) 거절에 대하여 더욱 부정적으로 반응하리라고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F(1, 50) = 6.09$, $p < .05$. 이 결과는 거절 당하는 사람이 거절하는 사람이 예측하는 것만큼 큰 불쾌함을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위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때 거절 당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느낄 것을 염려하지만, 이러한 염려는 실제 거절 당하는 사람들의 반응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독립적 문화성향에 한하여 난이도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100) = 5.97$, $p < .01$.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에선 난이도에 따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F(2, 100) = .14$, $n.s.$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락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연구 참가자들은 거절 당한 상대방이 덜 부정적으로 느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즉, 수용하기 어려운 부락에 대해서는 자신이 거절하더라도 상대방도 크게 부정적으로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표3. 부탁의 난이도에 따른 거절에 대한 반응과 예측

난이도	거절함	거절 당함
	M (SD)	M (SD)
상	2.87 (.92)	2.27 (.97)
중	3.41 (.98)	2.83 (1.09)
하	3.71 (1.09)	3.71 (1.29)

연구 1의 두 번째 목표는 문화성향에 따라 거절 당한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예측이 달라지는 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예측과 일관되게 독립적 문화성향의 수준과 거절 조건 간에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F(1, 50) = 8.87, p < .01$. 즉, 거절을 하는 사람의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거절 당하는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림 1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독립적 문화성향 점수의 중앙값(median)을 기준으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을 나누어 거절에 따르는 실제 반응과 거절 당한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한 바를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거절 당할 경우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M = 2.56, SD = 1.05$)에 비하여 자신이 거절할 경우 상대방이 보일 부정적인 반응($M = 3.62, SD = .91$)이 더욱 강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t(25) = 2.74, p < .01$. 반면,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거절 당할 경우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M = 2.78, SD = 1.03$)과 자신이 거절할 경우

상대방이 보일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예측($M = 3.06$, $SD = .88$)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25) = -.75$, $n.s.$

또한, 거절하는 조건에서 문화성향 수준에 따른 차이가 경계선상에서 유의했다, $t(25) = -1.82$, $p < .08$. 하지만 거절 당함 조건에서 문화성향 수준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t(25) = .73$, $n.s.$ 이는 거절 당하는 것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는 독립적 문화성향의 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자신의 거절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예측에 있어서만 독립적 문화성향의 수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 비하여 독립적 문화성향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의 경우,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예측이 실제 거절 당한 사람의 반응과 보다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에 예측이 실제와 부합하는 정도가 독립적 문화성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의 경우에는 주효과 및 거절 조건과의 상호작용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각각 $F(1, 50) = .98$ 과 $F(1, 50) = .51$, 모두 $n.s.$

종합하면, 연구 1을 통하여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이 실제보다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문화성향에 따라 거절 후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예측과 실제 반응 간의 합치도가 달라짐을 관찰하였다. 즉, 예상했던 바와 같이 독립적 문화성향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 비하여 독립적 문화성향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의 경우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예측과 실제 반응이 보다 잘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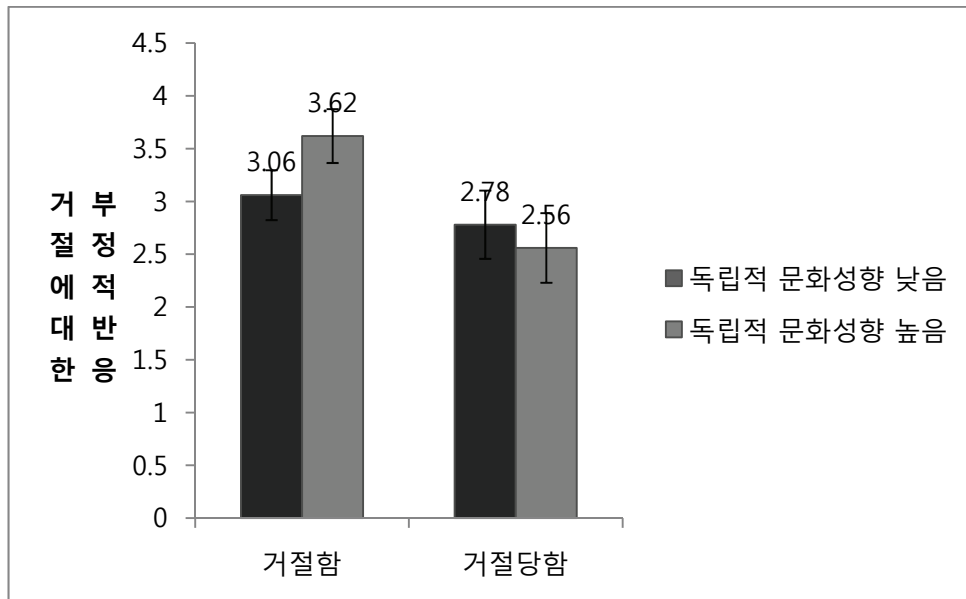


그림1 . 연구 1에서 관찰된 문화성향에 따른 거절 반응 예측의 차이

2.3. 논의

연구 1의 목표는 거절하는 사람이 거절 당하는 사람의 부정적인 반응을 실제와 어느 정도 부합하게 예측하는지를 살펴보고, 문화성향에 따라 예측과 실제 반응 간의 합치도가 달라지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부탁을 거절 당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 거절에 대하여 더욱 부정적으로 느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문화성향에 따라 거절 반응에 대한 예측과 실제 반응 간의 합치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 역시 지지되었다. 독립적 문화성향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거절 당한 상대방의 실제 반응에 보다 부합하는 예측을 하였다.

그렇다면 왜 문화성향에 따라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이 실제 반응과 부합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한 가지 가능성은 문화성향에 따라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독립적 문화성향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독립적 문화성향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다른 이의 관점을 보다 빈번하게 취한다고 한다(Epley, Keysar, Boven, & Gilovich, 2004; Galinsky, Magee, Inesi, & Gruenfeld, 2006). 이로 미루어, 연구 1에서 거절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할 때 독립적 문화성향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독립적 문화성향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보다 상대방의 관점을 충분히 취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거절당한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할 때,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관점을 취했기 때문에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보다 거절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실제에 가깝게 예측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 2에서는 연구 참가자들이 타인의 관점을 취하도록 실험적으로 유도하였다. 즉, 타인의 관점을 취하도록 유도했을 때 문화성향에 따라 거절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다르게 예측하는 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2를 통하여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도 타인의 관점을 취하도록 유도되었을 때에는 거절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실제 반응에 보다 가깝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반면,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이미 타인의 관점을 취하도록 하는 실험 조건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3. 연구 2

연구 1에서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 당하는 사람이 보일 반응을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거절 당한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과 예측이 부합하는 정도는 문화성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거절 당한 상대방의 반응을 실제와 다르게 예측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2의 목적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거절 당한 상대방의 관점을 충분히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1에서와 같은 결과가 관찰 되었을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통제조건에 비하여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게 한 조건에서 거절 당한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을 실제에 가깝게 예측하게 될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2에서는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도록 실험적으로 유도 하였다. 만약, 거절 상황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상대방의 관점을 충분히 취하지 못해서라면,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게 했을 때 예측이 부합하는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방의 관점을 일상적으로 덜 취하므로 관점을 취하는 조건에서 통제조건보다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예측이 실제와 유사해질 것이라 기대하였다. 요컨대 연구 2에서는 문화성향에 따라 거절 당하는 사람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예측이 다른 것은 관점취하기 때문일 가능성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3.1. 연구 방법

1) 연구 참가자

연구 2에는 107명의 여자 대학생들이 학점이수를 조건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대답한 2명의 응답은 제외하고 105명만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 참가자의 연령의 범위는 18세에서 24세, 평균연령 19.87세였다($SD = 1.50$).

2) 측정도구

거절 상황 질문지

연구 1과 동일한 6가지의 거절 상황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9문항을 통하여 측정하며 거절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10점 척도 상에 평정하였다(0: 전혀 그렇지 않다, 9: 매우 그렇다). 1번 역 채점 문항을 제외하고는 점수가 높을수록 거절 상황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성향 척도

문화성향 척도는 연구 1에서 사용한 Singelis의 수정된 문화성향 척도 20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참가자들의 문화성향을 측정하였다(1: 나를 나타내는데 전혀 적절하지 않다, 5: 나를 나타내는데 매우 적절하다). 각각 10문항으로 독립적 문화성향과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측정하며 순서효과를 고려하여 상쇄평형화를 하였다. 그러나 연구 1과 마찬가지로 문화성향 중

상호의존적 문화성향과 독립적 문화성향의 제시 순서에 따른 순서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 연구 설계 및 절차

연구 참가자가 도착하면 두 명의 실험자가 각자 서로 다른 연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각 세션당 연구 참가자의 수는 최대 4명으로 제한하였으며 칸막이로 나뉜 자리에 앉아 과제를 작성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에게 첫 연구라고 제시되는 것은 관점취하기 조변이었으며 참가자들은 관점취하기와 통제조건 중 한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다.

관점취하기 조변으로는 Batson과 Early, Salvarani 의 1997년 연구에서 사용된 라디오 방송 실험 설계를 토대로 변형한 음성파일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관심도가 높은 주제인 취업 상황에 대한 음성파일을 제작하였다. 취업 면접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해본 직장인들과 취업 준비생들 6명을 인터뷰한 결과 얻은 면접 빈출 질문들과 예상 응답에 기반하여 대본을 제작하였다. 면접 지원자의 유능성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직장인들의 피드백을 받아 뛰어난 답변과 부실한 답변을 제외하였다.

취업 상황에서의 면접관과 취업 지원자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었다. 두명의 전문 연기자들이 대본에 따라 취업 면접상황을 연기하였다. 연구 2에 사용된 음성 파일은 총 5분 이었다.

연구 참가자들에게는 취업 면접상황을 듣고 면접에서 대답을 한 사람에 대한 인상을 평가하는 과제가 주어질 것이며, 연구의 목적은 음성으로 전달된 짧은 내용을 바탕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타인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있다고 소개하였다. 지시문에서 절반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면접에서 응답하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 뒤 지원자에 대하여 평가를 내려달라고 하였다(관점취하기 조건). 나머지 절반의 참가자들에게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지원자를 본 뒤’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려달라고 하였다(통제 조건).

구체적으로 관점취하기에 대한 지시문은 아래와 같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하여 두 사람간의 짧은 상호작용을 듣고 내리는 전반적인 인상평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듣게 될 내용은 면접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귀하는 면접 지원자의 인상을 평가 하게 될 것입니다.

관점취하기 조건

면접 내용을 듣는 동안에, 최대한 면접 지원자의 입장에서 들어주십시오. 즉, 귀하께서 지원자와 동일한 상황에 있다면 귀하께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상상하면서 들어주십시오. 다시 말해, 귀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대신 귀하께서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느낄지를 상상하는데 집중해 주십시오.

통제 조건

면접 상황을 듣는 동안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면접 지원자의 대답을 들어주십시오. 즉, 지원자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상상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말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십시오.

면접 내용을 들려 준 뒤 연구 참가자들에게 제시한 내용과 일관되게 면접 지원자에 대한 인상을 평가하는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를 통하여 면접 지원자의 유능성과 신뢰성, 전반적 인상에 대하여 응답 받았다(0: 전혀 그렇지 않다, 9: 매우 적절하다). 그 후 네 개의 문항으로 관점취하기 조건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면접 지원자의 관점을 취하기 위한, 혹은 객관적인(통제 조건) 시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즉,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게 하는 조건에서는 면접 내용을 듣는 동안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끼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와 실제 경험하고 있다고 느낀 정도를 각각 10점 척도로 물어보았다(0: 전혀 그렇지 않다, 9: 매우 그렇다). 아무런 관점을 취하지 않게 하는 통제조건에선 면접 내용을 듣는 동안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와 객관적으로 자신을 그 상황과 구분한 정도를 각각 10점 척도로 물어보았다(0: 전혀 그렇지 않다, 9: 매우 그렇다).

면접 지원자에 대한 평가가 끝난 후 두 번째 연구로 거절 연구를 소개하며 거절 질문지와 문화성향 질문지를 제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거절 조건에 무선 배정되었다. 요컨대 연구 2의 설계는 2(관점취하기: 관점취하기 vs. 통제조건) X 2(거절 조건: 거절 당함 vs. 거절함) X 연속변수(독립적 문화성향)이다. 거절은 피험자간 설계로 질문지는 연구 1과 동일하게 6가지 거절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측정하였다. 문화성향 측정은 상호의존적 문화성향과 독립적 문화성향의 순서효과를 고려하여 문항을 다르게 배치하였고 거절 질문지를 다 작성한 후에 문화성향 측정 질문지를 제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에게 관점취하기 조건과 거절 질문지는 두 개의 독립된 연구라고 설명하였다. 실험 회기 종료 후 연구에 대한 의문이 있는지 묻고,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두 연구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참가자는 없었다.

3.2. 결 과

문화성향의 순서효과, 즉 독립적 문화성향과 상호의존적 문화성향 중 무엇을 먼저 평정하였는가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거절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문항들 간 내적합치도를 계산한 결과, 난이도 상, 중 및 하인 상황에서 각각 .92, .91 및, 하.92임을 알 수 있었다.

1) 관점취하기 조변 확인

본 분석에 앞서 관점취하기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면접 지원자의 관점을 취하도록 한 조건에서 통제 조건에 비하여 연구 참가자들이 면접 지원자의 관점을 유의하게 많이 취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관점취하기 조변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면접 지원자에 대한 인상을 평가하는 질문지에 관점취하기에 관련된 질문을 포함시켰다.

관점을 취하게 한 조건에 대해 물어보는 문항 5번에서 관점취하기와 통제 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통제 조건에 비하여($M = 3.60$, $SD = 2.09$) 관점을 취하게 한 조건에서($M = 5.68$, $SD = 1.80$) 보다 더 면접 지원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t(103) = 5.45$, $p < .001$. 또한 통제 조건($M = 4.33$, $SD = 2.31$)에 비하여 관점을 취하게 한 조건에서($M = 6.47$, $SD = 1.83$)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어떻게 느낄지에 많이 집중하였다고 응답하였다, $t(103) = 5.25$, $p < .001$. 즉, 관점을 취하게 하는 조건에서 실험 참가자들이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타인의 관점을 많이 취했음을 알 수 있었다.

2) 관점취하기 여부에 따른 부정적 반응 예측의 차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관점취하기 조변에 따라 거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예측하는 것이 달라지는지의 여부였다. 즉, 관점을 취하게 했을 때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통제조건에 비하여 거절 당하는 사람의 반응을 실제 반응과 부합하는 예측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관점취하기와 거절조건, 연속변수인 독립적 문화성향을 독립 변수로 포함시킨 2(관점취하기: 관점취함 vs. 통제조건) X 2(거절 조건: 거절함 vs. 거절 당함) X 연속변수(독립적 문화성향)X 연속변수(상호의존적 문화성향) mixed ANOVA를 실시하였다.

연구 1과 달리 난이도에 따른 주효과는 독립적 문화성향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F(2, 192) = 1.71, n.s.$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은 거절 상황 난이도에 따른 주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F(2, 194) = 3.91, p < .05$. 난이도가 어려워질 수록 거절하거나 당하는 조건에서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 점수는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예측과 일관되게, 관점취하기와 거절조건, 독립적 문화성향에 따른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4, 95) = 2.79, p < .05$. 관점을 취하게 하는 조건과 관점을 취하지 않는 통제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패턴이 나타났다. 그림 2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독립적 문화성향 점수 상위 50% 집단과 하위 50% 집단의 거절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관점취하기와 거절 조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통제조건은 타인의 관점을 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구 1의 결과를 반복 검증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즉,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거절 당한

상대방의 반응과 부합하지 않는 예측을 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제조건에서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자신이 거절한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M = 2.51, SD = 1.26$)이 낮을 것이라 응답하고, 거절 당할 때 자신이 보일 부정적 반응($M = 2.27, SD = 1.12$)도 낮을 것이라 응답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예측한 거절 당하는 사람의 반응이 실제 거절 당하는 사람의 반응과 부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1의 결과, 즉,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예측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낮을수록 통제조건에서 거절 당하는 사람의 반응을 더욱 부정적일 것이라 예측하였다. 연구 1에서는 문화성향 수준이 낮을수록 거절 당하는 사람의 반응과 예측이 부합했지만 연구 2의 통제조건에서는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거절 당하는 사람의 반응과 다른 예측을 하였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거절한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M = 3.20, SD = 1.31$)은 높고 자신이 거절 당할 때 보일 부정적 반응($M = 2.25, SD = 1.32$)은 낮게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즉, 통제조건에서 거절 당하는 사람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예측은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실제 반응과 부합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관점을 취하게 한 후에 독립적 문화성향에 따른 거절에 대한 예측이 달라지는가의 여부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 상대방의 반응과 부합하지 않는 예측을 했던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관점을 취하게 했을 때는 보다 부합하는 예측을 하게

될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관점을 취하게 한 조건에서 연구 1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과 거리가 있는 예측을 하였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거절한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M = 3.03, SD = 1.04$)을 통제조건에 비하여 크게 지각하고 자신이 느낄 부정적 반응($M = 2.00, SD = 1.37$)은 낮을 것이라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관점을 취한 후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거절한 상대방이 보일 부정적 반응($M = 3.18, SD = 1.07$)은 통제조건과 유사하게 지각하나 자신이 거절 당했을 때 느낄 부정적 반응($M = 2.84, SD = 1.41$)을 통제조건에 비하여 높게 지각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통제조건과 반대되는 결과로, 관점을 취하게 한 후엔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거절 당한 상대방의 반응에 부합하는 예측을 하였다.

종합하면, 연구 2의 통제조건과 관점취하기 조건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통제조건에서 거절하는 사람은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에 부합하는 예측을 하였지만, 관점을 취하도록 유도를 한 후엔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낮을수록 상대방의 반응과 예측이 유사해졌다. 달리 말하면,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도록 유도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거절 당한 상대방의 반응과 부합하는 예측을 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게 하면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낮을수록 거절 당한 상대방의 반응과 부합하는 예측을 하였다. 이는 관점취하기 조변이 문화성향 수준에 따른 거절 반응 예측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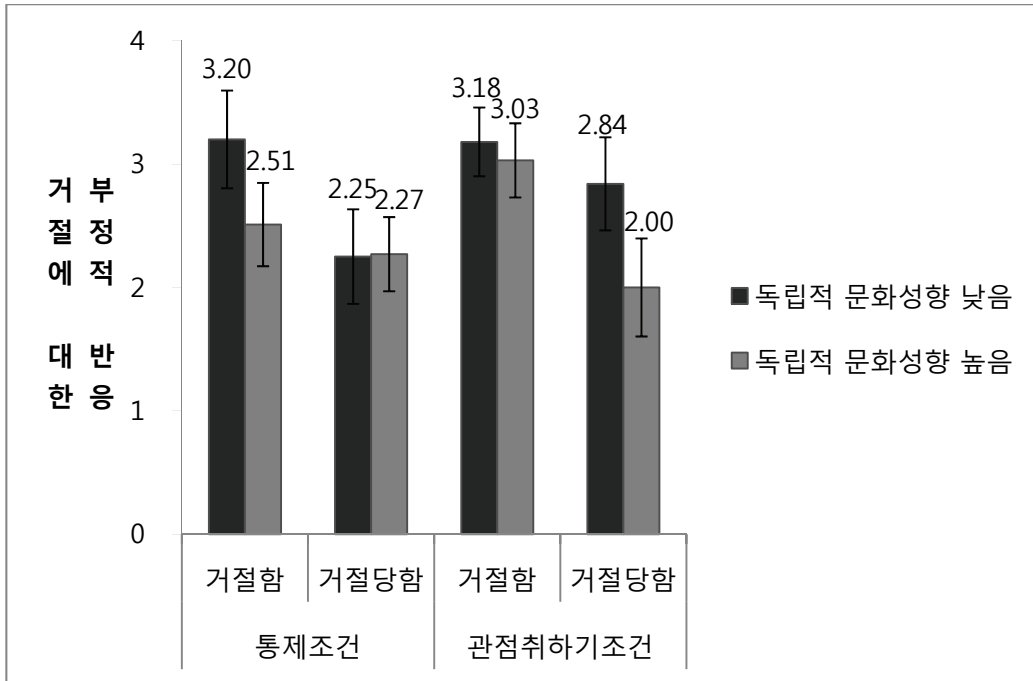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2에서 관찰된 관점취하기와 문화성향에 따른 반응 예측의 차이

3.3. 논의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의 결과가 관점취하기로 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타인의 관점을 충분히 취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 당한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을 실제와 부합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라 가정하였다. 반면에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미 타인의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 당하는 사람의 부정적 반응을 실제와 부합하게 예측하는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미 타인의 관점을 취하기 때문에 관점취하기 조건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반면,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관점을 취하도록 유도되었을 때, 거절 당한 상대방의 반응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가능한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는 통제 조건은 연구 1과 마찬가지로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이 거절한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을 실제와 부합하지 않게 예측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문화성향과 거절조건, 관점취하기 간에 삼원 상호작용이 나타났지만 이는 예상과 다른 결과였다. 통제조건에선 관점을 취하게 하지 않으므로 연구 1과 같은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 예상했다. 즉,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에 부합하는 예측을 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하지만 연구 2에서는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이 더욱 부정적일 것이라 예측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에 부합하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타인의 관점을 취하게 했을 때에는 반대로 나타났다. 즉,

관점을 취하게 했을 때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예측은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과 유사해졌다. 그러나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관점을 취하게 했을 때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부합성이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통제조건에서 자신이 거절한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자신이 거절 당할 때 부정적인 반응을 적게 보일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게 했을 때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이 높을 것이라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성향에 따라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예측이 차이가 나타나며,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는지의 여부가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게 하지 않는 통제조건에서는 연구 1의 결과가 반복 검증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연구 2의 결과,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예측이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거절 당하는 사람의 반응과 부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1과는 다른 패턴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종합논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V. 종합 논의

우리는 일상적으로 거절을 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거절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거절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거절 당한 상대방이 보일 부정적인 반응과 거절이 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염려 일 것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거절하는 사람의 이러한 염려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음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즉,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이 예상하는 것에 비하여 부탁을 거절 당하는 상대방은 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문화성향에 따라 거절 당하는 사람의 반응에 대한 예측이 달라지는지 검증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문화 성향에 따라 관점을 취하는 것이 거절당하는 사람의 반응 예측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통제조건에 비하여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도록 한 조건에서 거절 당한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을 실제에 가깝게 예측할지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표들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절하는 사람이 예측한,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은 실제 반응과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이 예측한 상대방의 반응이 더욱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염려가 실제 반응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더 나아가 문화성향에 따라 이러한 예측이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문화성향 중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에 의해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독립적 문화성향에 따라서는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즉,

독립적 문화성향이 강할 수록 거절 당하는 사람의 부정적 반응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해 실제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성향에 따른 거절 당한 사람의 반응에 대한 예측이 관점취하기 여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들은 독립적 문화성향의 수준이 낮을수록 일상적으로 타인의 관점을 빈번하게 취함을 보여주었다(Epley et al., 2004; Galinsky et al., 2006). 그렇기에 거절 상황에서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관점을 취했기에 거절 당한 상대방의 반응과 유사한 예측을 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반면에 타인의 관점보다 자신의 관점을 빈번하게 취하는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거절상황에서 거절 당하는 타인의 관점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2에서 관점취하기를 실험적으로 조변하면 관점 취하기 조변의 효과가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관점취하기에 따른 거절반응 예측의 효과는 독립적 자기관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또한, 연구 1을 반복검증해줄 것이라 생각했던 통제 조건에서 연구 1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점을 취하지 않게 한 통제 조건에서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낮은 사람들보다 거절 당하는 사람의 반응과 부합하는 예측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관점을 취하게 했을 때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은 사람들보다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에 가깝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성향에 따라 거절 당한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예측이 달라지기도 하며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는가의 여부 역시도 거절 반응 예측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거절에 주목하였고 거절 당한

사람의 반응에 대한 거절하는 사람의 예측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동일한 문화 내에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문화성향에 따라 이러한 예측이 달라지며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는지의 여부가 이러한 예측을 다르게 만들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 1에서 관찰되었던 문화성향에 따른 거절반응 예측의 차이가 연구 2에서 반복 검증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하도록 하는 지시가 없었던 연구 2의 통제 조건에서 연구 1의 결과가 반복 검증될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이러한 기대와는 반대의 결과가 관찰되었다. 즉, 독립적 문화성향의 수준이 낮을수록 거절 당한 상대방의 반응과 실제와 가깝게 예측하였던 연구 1에서와는 달리, 연구 2에서는 오히려 독립적 문화성향이 높을수록 거절 당한 상대방의 반응에 부합하는 예측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가능한 설명 중 한 가지는 연구 2에서 관점취하기 조변을 사용하면서 통제되지 않은 제 3의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가능한 변수로는 공감(Empathy)이 있을 것이다. 관점 취하기와 공감은 높은 관련성을 가지지만, 관점 취하기가 곧 공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Iannotti, 1978; Underwood & Moore, 1982). 본 연구에서는 관점 취하기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졌으나 실제 연구 참가자들의 공감 수준에 대한 검증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연구 2의 참가자들에게 통제 조건에서 주어진 면접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것을 지시하였으나, 통제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 역시 면접 지원자의 관점을 취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를 받았던 관점 취하기 조건의 연구참가자들과 같이 면접 지원자에게 공감하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어려운 상황을 수치로 제시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개인의 어려운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제시할 때 공감이 증가하였다(Small, Loewenstein & Slovic, 2007). 그렇다면 활자로만 거절

상황을 접하였던 연구 1의 참가자들에 비하여, 상호작용을 음성으로 접하였던 연구 2의 참가자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감 수준이 높아졌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감 수준의 변화가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예측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공감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와 같이 높아진 공감 수준이 부탁을 거절 당하였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에 영향을 줄 것인지 알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관점 취하기의 효과성이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서 모두 나타났으며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한가지 가능한 해석은 객관적인 관점을 취하게 하였던 통제 조건이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의도치 않았던 실험 조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 즉, 독립적 문화성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타인의 관점을 취할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일상적으로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라는 지시는 평소 취하던 관점을 바꾸게 하는, 실험조건이었을 수 있다.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게 한 조건 즉, 일상적으로 취할 것이라 가정되는 관점을 취하게 한 조건에서는 연구 1과 마찬가지로 거절 당한 상대방의 반응과 부합하는 예측을 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독립적 문화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게 했을 때 거절 당하는 상대방의 반응과 부합하는 예측을 하지만, 타인의 관점을 취하도록 유도하면 상대방이 거절에 대하여 더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관점 취하기 조변이 사용되었던 Batson(1997)의 연구에서와 같이 방송의 기술적 측면이나 녹음된 음성의 품질을 평가하도록 하고 내용을 들려주어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인지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실제 거절하는 사람과 거절 당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들로 하여금 일련의 거절 상황들을 상상하여 답하도록 하였을 뿐, 실제로 부탁을 거절하고 거절 당한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바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알고 지낸지 한달 정도된 친구와의 사이에서 그러한 부탁을 하고 거절했을 때, 거절 당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를 검증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일반적으로 거절이 일어날 때의 예측을 반영할 수는 있지만 실제 두 사람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절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실제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의 예측과 거절 당한 사람의 반응 사이의 합치도에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신승호 (2002). 개인주의- 집합주의의 문화차가 거절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태연 (2010). 한국사회의 상호의존적 문화성향적 성격에 대한 역사, 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 (3), 53-76.
- 조궁호, 김은진 (2001). 문화성향과 동조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 (1), 139-165.
- Anderson, C., & Keltner, D. (2002). The role of empathy in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social bond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5 (1), 21-22.
- Batson, C. D., Early, S., & Salvarani, G. (1997). Perspective taking: Imaging how another feels versus imaging how you would fe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7), 751-758.
- Cheng, C., & Chun, W. Y. (2008). Cultural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request rejection: A situational approach. *Journal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9 (6), 745-764.
- Cohen, D., & Gunz, A. (2002). As Seen by the Other ... : Perspectives on the self in the memories and emotional perceptions of Easterners and Westerners. *Psychological Science*, 13 (1), 55-59
- Cooper, M. (2005). The Inter-experiential Field: Perceptions and meta perceptions in person centered and experiential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Person Centered and Experimental Psychotherapies*, 4 (1), 54-68.

- Depaulo, B. M., Kenny, D. A., Hoover, D. W., Webb, W., & Oliver, P. V. (1987). Accuracy of person perception : Do people know what kinds of impressions they conve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2), 303–315
- Epley, N., Keysar, B., Van Boven, L., & Gilovich, T. (2004). Perspective taking as egocentric anchoring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3), 327–339.
- Erika N., Carlson, E. N., Vazire, S., & Furr, R. M. (2011). Meta-insight: Do people really know how others see th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 (4), 831–846.
- Galinsky, A. D., Magee, J. C., Inesi, M. E., & Gruenfeld, D. H. (2006). Power and perspectives not taken. *Psychological Science*, *17* (12), 1068–1074.
- Galinsky, A. D., & Moskowitz, G. B. (2000). Perspective-taking: Decreasing stereotype expression, stereotype accessibility, and in-group favorit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4), 708–724.
- Greenwald, A. G., & Pratkanis, A. R. (1984). The self. In R. S. Wyer &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pp.129–178). Hillsdale, NJ: Erlbaum.
- Holyoak, K. J., & Gordon, P. C. (1983). Social reference poi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5), 881–887.
- Iannotti, R. J.(1978). Effect of role-taking experiences on role taking, empathy, altruism, and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4* (2) , 119–124

- Kitayama, S., Markus, H. R., & Kurokawa, M. (2000). Culture, emotion, and wellbeing: Good feeling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gnition and Emotion, 14* (1), 93–124.
- Laing, R.D. (1969). *Self and others* (2nd ed.). London: Penguin.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 224–253.
- Mizuta, I., Zahn-Waxler, C., Cole, P. M., & Hiruma, N. (1996). A cross-cultural study of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and sensitivity in Japanese and US dyad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 (1), 141–159.
- Niiya, Y., Ellsworth, P. C., & Yamaguchi, S. (2006). Amai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An exploration of a “culturally unique” emotion. *Emotion, 6* (2), 279–295.
- Pronin, E., Kruger, J., Savitsky, K & Ross, L. (2001). You don't know me, but I know you: The illusion of asymmetric insi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4), 639–656.
- Rothbaum, F., Pott, M., Azuma, H., Miyake, K., & Weisz, J. (2000). Trade-offs in the study of culture and development: Theories, methods, and values. *Child Development, 71* (5), 1159–1161.
- Ruby, P., & Decety, J. (2004). How would you feel versus how do you think she would feel? A neuro-imaging study of perspective-taking with social emotions.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6* (6), 988–999.
- Savitsky, K., Epley, N., & Gilovich, T. (2001). Do others judge us as

- harshly as we think? Overestimating the impact of our failures, shortcomings, and misha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1), 44–56.
- Shen, H., Wan, F., & Wyer, R. S. (2011).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the refusal to accept a small gift: The differential influence of reciprocity norms on Asians and North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 (2), 271–281.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20* (5), 580–591.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 Cultural Research*, *29* (3), 240–275.
- Small, D. A., Loewenstein, G., & Slovic, P. (2007). Sympathy and callousness: The impact of deliberative thought on donations to identifiable and statistical victim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02* (2), 143–153
- Soto, J. A., & Levenson, R. W. (2009). Emotion recognition across cultures: The influence of ethnicity on empathic accuracy and physiological linkage, *Emotion*, *9* (6), 874–884.
- Stinson, L., & Ickes, W. (1992). Empathic accuracy in the interactions of male friends versus male strang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5), 787–797.
- Takaku, S., Weiner, B., & Ohbuchi, K. I. (2001).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apology and perspective taking on forgiveness,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20 (1), 144–166.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J. Berman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pp. 41–133).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2), 323–338.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 118–128.

Underwood, B., & Moore, B. (1982). Perspective-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 (1), 143–173

Vescio, T. K., Sechrist, G. B., & Paolucci, M. P. (2003). Perspective taking and prejudice reduction: The mediational role of empathy arous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4), 455–472.

Wellman, H. M. & Lagattuta, K. H. (2000). Developing understanding of mind, In S. Baron Cohen, H. Tager-Flusberg, & D. J. Cohen (Ed.), *Understanding other minds: Perspectives from 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 (pp. 21–49).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Wu, S., & Keysar, B. (2007). The effect of culture on perspective taking. *Psychological Science, 18* (7), 600–606.
- Yamaguchi, S. (1999). nichijougo to shitenno amae kara kangaeru [thinking about Amae from everyday usage of the word]. In O. Kitayama (Ed.), *Amae ni tsuite Kangaeru [Thinking about Amae]*. Tokyo: Seiwa Shoten.
- Zahn-Waxler, C., Friedman, R. J., Cole, P. M., Mizuta, I., & Hiruma, N. (1996). Japanese and United States preschool children's responses to conflict and distress. *Child Development, 67* (5), 2462–2477.

Abstract

On Overestimating the Impact of Request Rejection and the Role of Cultural Self–Construal

Soeun Yim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ree hypotheses that (a) whether individuals who rejected a request would overestimate the impact of their rejection; (b) whether independent vs.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make difference in the prediction of the impact of request rejection; (c) whether a perspective–taking manipulation would differentially affect how individuals of independent vs.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predict the impact of request rejection.

Study 1 showed that individuals who rejected a request generally overestimated the impact of their rejection such that they predicted that who were rejected would show negative responses to their rejection. Also, the more independent self construal they have, the more overestimate impact of their rejection. Study 2 revealed that perspective–taking

led individuals who have high level of independent self-construal overestimated the impact of their rejection. On the other hand, when they kept objective perspective, individuals who have low level of independent self-construal overestimated the impact of their rejection.

These data were interpreted to suggest that individuals who rejected concern about negative effect of their rejection, but it is exaggerated. Furthermore, cultural self-construal have pivotal role in these overestimating. Also, when they took on the perspective of others, by the level of independent self-construal, they predict the impact of request rejection differently. Finally,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cultural self-construal, request rejection, interpersonal perception, perspective taking

부 록

표 4. 문화성향 척도

-
- 1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신경을 쓴다.

 - 2 나는 대인관계에서 나와 비교하여 상대방이 어떠한 지위에 있으며 우리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신경을 쓴다.

 - 3 나는 지인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과 갈등을 피하려 한다.

 - 5 내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과 충돌할 때, 나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 6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겸손한 사람들을 존경한다.

 - 7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나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것이다.

 - 8 나는 종종 인간관계가 성취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

 - 9 나는 나의 운명이 내 주변 사람들의 운명과 얽여있다고 느낀다.

 - 10 나는 주변 상황과 사람들에 따라 때때로 나의 태도와 행동을 바꿀 것이다.

 - 11 나는 항상 내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자 노력한다.

 - 12 나는 나만 혼자 칭찬을 듣거나 상을 받는 것이 편안하다.

 - 13 내 스스로 내린 결정이 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다.
-

14 전반적으로 나는 내 나름의 결정을 내린다.

15 나는 누구와 함께 있던지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16 나는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과 다르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17 나는 항상 내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18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여부가 나에게서 주요 관심사이다.

19 나는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하고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좋다.

20 나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계없이 나만의 일을 한다.

감사의 글

대학원 생활 동안 물심양면 지원해주시고 이끌어주신 박혜경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은 제게 가장 좋은 지도 교수님 이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교수님. 교수님을 만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논문을 심사해주신 김명선 교수님, 이정윤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전 좋은 교수님들을 많이 만난 듯 해 참 감사합니다.

짧고도 긴 대학원 생활 동안 마음속의 지지대가 되어준 혜원선생님과 효진언니, 경미언니 감사합니다. 선배가 없던 제게 선배였고 때론 인생의 조언자였으며, 같은 수업을 듣는 동기이기도 했습니다. 언니와 선생님으로부터 위안을 받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에 자극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주현언니 서희언니, 다희씨 고마워요.

그리고 같이 대학원 생활을 하며 친구로, 때론 같은 분야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준 미림이와 근화언니, 한울안 고마워. 대학원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고 이해해줘서 든든했어. 내 사랑하는 친구들 승민이,슬기, 선아, 경미, 신혜 고마워.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 어려운 순간 너희가 있어 힘이 났어. 너희의 존재가 참 감사하다.

무엇보다 저를 지금 이 곳에 존재하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 드립니다. 하고 싶은 공부에 대해서 늘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부모님. 저는 참 부모님을 잘 만났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아끼는 내 동생 소희 상대. 사랑한다! 늘 염려하고 챙겨줘서 고마워.

부족한 제 자신이 이곳에 있기까지 인도하여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